조계종 대종사·명사 법계 15명 확정

원로회의, 대종사 4명·명사 11명 만장일치로

2007년 후 명사 법계 11년 만
조계종 비구니계 숙원 해소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단 수행과 지도력의 상징인 신임 대종사와 비구니 명사 총 15인이 배출된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1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61차 회의를 열고, 법계위원회가 추천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인 현 원로의원 우송·현호·일면·원행 스님과 비구니 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 소림·행돈·묘관·자민·법희·수현·혜운·자행·불필·자광·재운 스님에 대한 심의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은 법계위원회 심의와 중앙종회 동의, 원로회의 결의로 확정된다.

특히 비구니 명사 법계는 지난 2007년 10월 최초 명사 법계 품수자인 혜운·광우·묘엄·지원·명성·정훈·정화 스님 등 7명 이후 첫 배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0여 년간 명사 법계 품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스님들이 입적해 현재 명사는 광우·명성·정훈 스님뿐이었다. 이로 인해 비구니 명사 법계 품수는 조계종 비구니계의 숙원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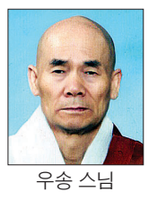
법계 품서 대상 스님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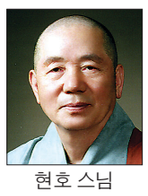
우송 스님은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정혜사서 인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서 혜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대 중앙종회의원,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덕숭총림 선원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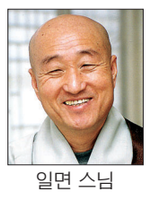
현호 스님은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상백운암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10대 중앙종회의원,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를 역임했다.

일면 스님은 명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과 1967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호계원장 및 교육원장, 군종특별교구장 등을 역임했다.

대종사


우송 스님


현호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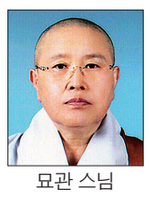

일면 스님


원행 스님

명사


소림 스님


행돈 스님


묘관 스님


자민 스님


법희 스님


수현 스님


혜운 스님


자행 스님


불필 스님


자광 스님


재운 스님

원행 스님은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0년 월정사서 희찬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범어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과 초심호계위원을 역임했다.

소림 스님은 상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49년 수덕사서 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71년 수덕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견성암 선원장을 역임했다.

행돈 스님은 법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0년 수덕사서 고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69년 범어사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대원사 주지를 역임하고 동국제일선원을 중창했다.

묘관 스님은 정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0년 해인사서 인곡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66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단일계단 니존증아사리와 니갈마아사리, 니화상 등을 역임했다.

자민 스님은 혜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4년과 1962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니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단일계단 니존증아사리와 니갈마아사리, 니화상 등을 역임했다.

법희 스님은 인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홍제사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61년 통도사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석남사 주지를 역임하고, 석남사 정수선원 선원장을 맡고 있다.

수현 스님은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수정사서 대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66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학사 주지, 제11~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혜운 스님은 뇌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6년 김용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66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육수암 칠보선원 선원장을 역임했다.

자행 스님은 정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과 1962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니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대성암 선원장을 맡고 있다.

불필 스님은 인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 석남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61년 통도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금강굴 및 겁외사를 창건했다.

자광 스님은 종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8년 내원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63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내원사 동국제일선원 선원장, 법계사선원 선원장을 역임했다.

재운 스님은 복석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과 1963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과 단일계단 니교수아사리, 니갈마아사리를 역임했다.

"노사갈등 해결, 조계종 큰 도움"

쌍용차 노사 조계종 첫 예방



쌍용자동차가 9년 3개월 만에 노사분규를 끝내고 합의 이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처음으로 쌍용차 노사가 함께 조계종 측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사진〉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차노조), ㈜쌍용자동차는 1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그간 노사 합의에 힘을 보탠 조계종에 감사인사를 표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고자 복직을 위해 함께해 준 불교계를 잊지 못한다"며 "노·노·사가 상생의 틀 아래서 합의한 바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득중 쌍차노조 지부장은 "자승 스님이 계실 때 네 차례 예방한 적 있지만 그때는 혼자였다. 이번 방문에는 기업노조와 사측, 공장 노동자와 다함께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무척 뜻 깊다"면서 '고맙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수건을 원행 스님에게 선물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2009년부터 이어진 힘든 시간을 잘 견뎌왔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이란 값진 결과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잘 이행하고 상생해나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지원 기자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개편 '움직임'

소통과화합위원회 신설 등 논의 진행 중

대중공사·종책委 사실상 해산
온라인 소통창구 마련 검토도

2017년 조계종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종단 미래전략 강구를 위해 설립한 백년대계본부가 2년 만에 개편될 전망이다. 활동이 미진한 산하 위원회들은 타 위원회로 흡수하는 한편,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공약서 밝힌 '소통과화합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는 현재 불교사회연구소·미래세대위원회·화쟁위원회·대중공사추진위원회·종책개발위원회 등 5개 위원회로 이뤄져있다. 백년대계본부 측에 따르면 5개 위원회 중 대중공사추진위원회와 종책개발위원회는 각각 신설되는 소통과화합위원회와 기존 불교사회연구소에 흡수된다. 지난 1년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개편 대상으로 지목된 셈이다.

백년대계본부 사무국장 원묵 스님은 "대중공사추진위는 신설될 소통과화합위원회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 대중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흡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종책개발위 역시 종회의원을 중심으로 종책을 만들고자 했지만 원활하지 못했다. 이는 불교사회연구소에서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 그 기능을 맡기기로 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 예정인 소통과화합위원회는 전방위적으로 종도의 목소리를 취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위원회 규모는 타 위원회보다 작게 구성하면서 온라인활동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시청 홈페이지서 시민이 시장에게 직접 묻는 형식의 '총무원장이 듣습니다' 또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소통창구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묵 스님은 "소통과화합위는 소통의 판을 만드는 역할이기에 위원회 규모는 크지 않은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사회 변화 흐름에 따라 온라인이 더욱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각 부서에 전달하려면 넉넉한 실무인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외에도 백년대계본부는 원행 스님의 또 다른 공약인 불교문화창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총무원 문화부 측과 논의 중이다. 문화창달위가 백년대계본부 산하기구로 편성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백년대계본부는 현재 불교사회연구소와 미래세대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장 선임 등을 놓고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5기 장학위 구성

21일 위촉… 위원장 보광 스님

조계종 종단 장학생을 선발하는 장학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12명의 제5기 장학위원 스님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5기 장학위원으로는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을 비롯해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총무부장 금곡 스님 △교육부장 진광 스님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선본사 주지 법성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백련사 주지 보각 스님 △원각사 주지 정덕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이 위원을 맡았다. 5기 위원장으로는 보광 스님이 위촉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좋은 스님들을 선발해 종도로서 사명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원 스님들에게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